

보도시점

2024. 5. 13.(월) 08:30

배포

2024. 5. 13.(월) 08:30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권익위 활동이 세계 옴부즈만에 공유된다.

- 제13차 ‘2024 세계 옴부즈만 컨퍼런스’ 참가, 권익 보호 기관간 교류·협력 강화
- 박종민 부위원장, ‘취약 계층 및 소수집단을 위한 옴부즈만 활동’ 등 주요 권익보호 사례 전파

□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1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국제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이하 ‘IOI’) 총회 및 제13차 ‘2024 세계 옴부즈만* 컨퍼런스’에 참가한다.

* 행정기관의 불법·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견제하고 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

□ IOI는 1978년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 및 전세계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까지 전 세계 125개국 232개 기관이 가입하였고,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올해 4월 총 24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아시아 지역 이사로 선출되어 활동 중이다.

IOI 총회에는 4년마다 개최되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IOI 규칙 개정, 신규회원 자격 심사, 보조금 지원 승인 등의 의제를 논의하며, 그 밖에 대륙별로 개최하는 지역 회의에도 아시아 이사 기관으로서 관련 논의에 참여한다.

□ 한편, ‘세계 옴부즈만 컨퍼런스’는 전 세계 약 200여 개의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협력을 위해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옴부즈만

만 국제행사로, 이번 회의는 지난 2021년 화상으로 개최된 제12차 더블린 컨퍼런스에 이어 3년 만에 헤이그에서 대면회의로 개최된다.

이번 ‘세계 옴부즈만 컨퍼런스’의 주제는 “미래를 위해 함께 행동하자(Act together for our tomorrow)”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 환경 변화, 가치 딜레마 상황, 취약계층·소수집단·미래세대를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과 행동을 세부 주제로 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박종민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을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 주제의 세션에서 그간 국민권익위의 주요 집단민원 해결 사례들을 공유하고 참가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세계 최대의 옴부즈만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한국 옴부즈만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권익보호 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계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제 교류담당관	책임자	과 장	송영희	(044-200-7151)
		담당자	사무관	이송미	(044-200-715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